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75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16일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이름도 공약도 몰라… '깜깜이' 교육감 선거

'교육 소통령' 지방의원보다 무관심
민주당 색깔 점퍼 입고 선거운동도

"솔직히 내 아이가 고교를 졸업한 후에는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기 쉽지 않아요.", "자치단체장은 어느 정도 알지만 교육감 후보는 누구인 줄도 모르겠어요."

2007년 교육 자치 실현을 목표로 도입한 교육감 직선제가 올해로 15년이 됐지만 광주·전남 유권자의 무관심은 여전하다.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5명, 3명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유례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다.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은 초·중·고 교육 행정을 총지휘하는 자리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교육예산을 다룬다.

시교육청 예산은 올해 기준 2조 5920억원, 전남은 4조3300억원에 달한다. 조례와 규칙 제정은 물론 학교 설립, 이전·폐교 권한까지도 교육감이 행사한다. 한 마디로 '교육 소통령'이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정반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56.4%)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없다'고 응답했으며, '관심 있다'는 응답은 43.6%에 그쳤다. 광주·전라권 응답자의 경우 '관심 있다'는 55.7%로 전국 평균 보다 다소 높았으나 44.3%는 '관심 없다'고 응답했다.

관심도로 따지면 교육감 선거는 지방의원보다 못하다. 광주·전라권에서 지방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는 응답이 58.4%에 달하는 반면, 교육감은 55.7%에 그쳤다.

광주·전라권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 가량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69.8%였으나 '모르고 있었다'도 30.2%에 달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는 "교육감 선거는 학생, 학부모, 교육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있는 반면, 교육과 무관한 유권자들이 다수여서 관심이 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선거도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교육감 후보의 경우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 운동을 한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민주당 정서를 겨냥한 포석이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후보자들에게도 장벽이다.

한 도교육감 후보는 '얼굴 알리기에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한다. 시장, 도지사에 비해 시·도민의 관심이 적은데다 정당 후보와 달리 무소속 신분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명함 돌리고 언론과 인터뷰하며 얼굴 알리는 게 전부인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는 "출마선언부터 '눈에 띄는' 특별한 행사나 북콘서트 준비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시민들도 불만이다. 광주 학부모 김모씨는 "시민사회 단체가 단일화 등을 통해 인물 알리기와 정책 검증에 나서고 있긴 하나 여전히 후보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라며 "교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를 알리고 검증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깜깜이' 교육감 선거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는 "코로나 이후 학교밖 교육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아동 보육, 성인 평생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단체장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감과 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감 선출제도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활짝 핀 장미… 시민들도 '활짝' 휴일인 15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장미정원에 만개한 장미를 보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5월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42주년 기념식 윤 대통령 참석한다

'헌법 전문 수록' 메시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면 취임 이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이자, 첫 지역 일정이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18 민주묘지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5·18정신이라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초대 내각 구성에 있어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기념식에서 어떠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인지도 관심사다.

전임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2019년, 2020년 5·18 기념식에 총 세 차례 참석했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만 참석했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올해 기념식은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공식 슬로건으로 선정했으며 핵심 과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으로 삼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6·1 지방선거 광주·전남 광역·기초 단체장, 교육감 후보 프로필 ▶4·5면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 명단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가족의 5·18 - 들불열사 김영철과 딸 ▶7면
암스테르담서 고흐와 렘브란트를 만나다 ▶22면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 北 도발·경제·국제 기여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3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등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사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현안과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지, 양국 간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대통령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동맹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연합 방위태세도 재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시대에 맞게,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확대하고 심화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의제가 될 수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윤 대통령이 백신과 의약품 지원 방침을 세웠고,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회담과 기자회견은 모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용산 시대가 개막한 후 처음 맞는 공식 외빈"이라며 "의전이나 일정 관련해 여러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답방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선 "6월에 방미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20일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찾는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로 밝히는 온 동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일시: 6월 1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투표안내문 또는 내 투표소 찾기(nec.go.kr)에서 확인 가능

사전투표
일시: 5월 27일(금)~5월 28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거정보 등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바로가기
nec.go.kr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선거 알아보기!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방의원: 시·도 의원선거(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지역구), 시·도 의원선거(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선거(비례대표)
지방교육자치: 교육감선거
세종시(4장) 교육감, 시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제주도(5장) 교육감, 도지사,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 (전국 11개 국회의원선거구)
※ 투표 시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교육감선거 더 알아보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순서가 바뀝니다.
※ 세종시와 제주도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차 배정

투표소 가기 전, 정책·공약 확인하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방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후보자토론회 시청

투표소 갈 때 꼭 챙기기!
신분증과 마스크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단, 화면 캡쳐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며 3천여 명의 선관위 직원뿐만이 아니라 투·개표 사무 종사자, 참여하는 유권자 그리고 정당·후보자까지 모두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 선거사무 필요 인력: 사전투표 약 10만 명, 선거일 투표 약 19만 명, 개표 약 9만 명
* 선거사무 필요 시설: 사전투표소 약 3,500 개소, 투표소 약 14,500 개소, 개표소 약 260 개소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